

# 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2.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지면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정욕과 마땅치 못한 습관들이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죄인 줄 몰랐으나 최근 말씀의 빛 아래서 새롭게 깨닫게 된 나의 버릇이나 태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문은 침례를 받은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  
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  
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  
라로 스캔해 주세요.

## Sermon of the Week:

He Who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Passage: Mark 16:16 (ESV)

Date: July 19, 2026

Pastor: Dong Suk Chung

**Core Theme:** Belief and baptism aren't sequential, one confirming the other, but two sides of a single act. True belief means trusting that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stand in our place; baptism makes that inward reality outwardly certain, declaring a clean break with the old life. Genuine faith paired with public declaration protects against compromise and produces real, lasting growth.

Many people think you get saved first, and then later, you choose to get baptized. But the Bible shows us that faith and baptism belong together—just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Mark 16:16 declares, "He who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and Peter urged in Acts 2:38, "Repent and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Just as true faith naturally expresses itself through action, baptism is the natural, public declaration of an inward reality of salvation accomplished by Jesus Christ.

Sometimes we might not feel forgiven, but God's promise is always true. Imagine you owed someone a million dollars, and a kind friend paid off every single penny for you. Even if you still felt worried or poor inside, the debt is completely gone. Jesus paid for our sins when He died on the cross and came back to life in order to free us and give us new life in Him. We cannot save ourselves—Jesus already did the work. Faith simply means trusting what He did for us.

Baptism does not automatically save or wash away sins if it is not done with faith; an outward sign without genuine belief is an empty ritual. As Paul notes in Romans 10:10, we believe with the heart and confess with the mouth—both the unseen transformation and its visible expression belong together. Baptism is not the moment salvation begins, but the moment an already-accomplished reality is confirmed outwardly.

There's a real cost to skipping this open declaration. Faith that stays private and undeclared tends to drift back toward compromise. Old habits, old friendships built around old patterns, old ways of numbing pain, all remain within reach when there's no clear line drawn in front

of others. Baptism draws that line. It's a public, unmistakable statement made in front of a watching world: "In Christ, my old self has died, and I have become a new creation. I no longer belong to this world's order." That kind of clarity matters, because lukewarm, half-alliances rarely produce spiritual growth. When comfort and convenience become the priorities in life, then spiritual growth slows down, no matter how long a person has been in church.

A person who has died and risen with Christ is no longer ruled by the old self. Life after baptism must reflect this resurrection reality, stepping away from the dominance of sin and entering daily obedience to God's Word.

For those carrying lingering guilt or wondering if they have done enough, the answer is never found in self-punishment or self-reliance, but in returning to what is already true: we are fully forgiven and secure because of what Christ finished on the cross. Rather than striving in our own strength, we are called to surrender daily to the Holy Spirit, who produces lasting fruit in three key dimensions:

- **Toward God:** Walking in genuine harmony with the Triune God, trusting His Word above our fluctuating feelings or self-effort.
- **Toward Spiritual Warfare:** Standing firm in Christ's victory against the temptations and subtle illusions of the enemy.
- **Toward Others:** Demonstrating the love and character of Christ as light within our families, workplaces, and communities.

Whether or not you were baptized this morning, do not trust your emotions or your circumstances to tell you who you are. Even when you stumble, don't punish or shame yourself; the call is simply to return to the Spirit rather than dwell in feelings and thoughts of the flesh, trusting the settled facts of the gospel. Trust what has already been written no matter what any given day brings: "I have been made new in Christ." Believe it before you feel it, declare it before it is convenient, and let the proof follow after.

Ultimately, baptism is a glorious confession that marks the death of the old self and the beginning of a new life in Christ. It signifies a holy fresh start—a commitment to live daily in the freedom and power of Christ's resurrection life while anticipating the ultimate hope: the day when our bodies will join in the glorious resurrection upon our Lord's return.

# 삼나소식

나 성 교 회



삼 성 교 회

8월 2일 2026년

NASUNGCHURCH.NET

118 호

##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마가복음 16장 16절

날짜: 7월 19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후에 침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했고, 바울도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믿음과 침례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임을 보여 줍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른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이나 종교적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죄 사함과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부·성자·성령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특별한 감정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실을 내 감각이나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외적인 고백과 확증 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그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첫 행위가 됩니다. 침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침례 자체가 사람을 자동으로 구원 하거나 믿음 없이 죄를 씻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는 믿음 없이 행하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 구원의 사실을 외적으로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침례의 의미를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 자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침례는 또한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과 욕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무분별하게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16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육과 이생의 자량을 경고합니다. 성도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 것과 세상의 욕망을 사랑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전도의 목적을 위해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세상의 죄와 가치관에 타협하거나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에 타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도 세상과 육신에 매이면 영적 성장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침례 이후의 삶은 부활의 생명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죄와 육신의 지배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물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 간 소 식

- 오늘 2부 예배 후에 8월 정기 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행정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날 예배에 새로 참석하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로비 옆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음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전도용 삼나소식이 새롭게 리뉴얼 되었습니다. 주변의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로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성교회 연락처

 +1 562-690-7979



https://nasungchurch.net



information@nasungchurch.net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홈페이지에서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소식 → 삼나소식)

나성교회 예배안내

| 모임              | 시간         | 장소         |
|-----------------|------------|------------|
| 주일예배 1부         | 오전 8시      | 대예배실       |
| 주일예배 2부         | 오전 11시     | 대예배실       |
| 영어부 예배 (RHBC)   | 오전 11시10분  | EM 예배실     |
| 수요예배            | 오후 7시 30분  | 대예배실       |
| 유치, 유년부 (Seeds) | 오전 11시     | Seeds Room |
| 중, 고등부 (Abide)  | 오전 11시 10분 | EM 예배실     |

2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와 중국 길연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장금숙 집사

교통사고로 오른쪽 손목 골절상 (6주 진단)을 입어 치료중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아영 사모

자궁선근증으로 인하여 자궁을 적출(개복)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양희 집사  
(한나선교회)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된 부정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희정 집사  
(한나선교회)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옥경 집사  
(한나선교회)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현숙B 집사  
(2여선교회)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정신자 집사  
(한나선교회)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오중 집사  
(3남선교회)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열로 인한 다리 부종이 심하다고 합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미리암 리  
(에스더선교회)

난소암과 대장암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학철 목사님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 후유증과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시용 장로  
(모세선교회)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연경 형제  
(여호수아선교회)

방광암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오른쪽 어깨 탈골 재 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 감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무릎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홍영강 권사  
(모세선교회)

넘어져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항암치료와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현숙 권사 딸) 기도 부탁드립니다.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5